

Issue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34]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19. 3. 14 | 발행인: 이은희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 방안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목 차

- I. 문제 제기
- II. 여성독립운동가 서훈 현황
- III.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및 관련 연구 현황
- IV.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을 위한 방안

I. 문제 제기

- 우리나라 독립유공 서훈자는 약 1만5천여명이며 그중 여성은 357명으로 전체의 2.4%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실제 여성독립운동가 수가 남성에 비해 극도로 적은 것이라기 보다는, 몰성적인 유공자 심사기준 혹은 여성인물에 대한 적극적 발굴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임
- 사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여성 독립운동가에게 불평등한 점이 있음
 - 기존의 증거주의에 입각한 서훈 심사에서는 공적인 서류에 독립운동 행적이 나타나야 했었음. 예컨대 신문에 이름이 나오거나 옥살이를 3개월 이상 하는 등의 서훈 기준을 충족해야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음¹⁾

¹⁾ 안매결(1901~1976)의 경우에는 임신한 채 고문을 견뎠으나 만삭이라는 이유로 1개월여 만에 가석방 되어 그간 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하였다가 타계 42년만에 서훈이 확정됨



- 국가 보훈처는 이러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서훈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8년부터 일기나 회고록, 남편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렇듯 보훈처가 서훈 기준 개선을 통한 여성 서훈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로 해석됨
- 한편 2018년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 사례 중 하나로 제주해녀 항일운동을 꼽았음
- 주지의 사실이지만 제주여성들은 의병운동, 3·1운동에서부터 애국계몽운동, 항일운동, 광복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활발히 참가하여 왔으며(기계형 등, 2017), 교육, 단체활동, 정치·경제 활동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정여진 등,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은 제주여성독립유공자는 전체 184명 중 4.3%에 해당하는 8명에 불과함(2019.3월 기준). 이에 근현대 격동의 시기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제주지역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통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여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음
- 정부가 2017년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을 기회로, 더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세세히 밝히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여성독립운동 관련 여성사 분야 연구 현황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II. 여성독립운동가 서훈 현황

-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독립운동 순국인사 15만명 가운데 서훈자는 2019년 현재 1만5,180명으로 그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2.4%에 해당하는 357명에 불과함

표1 독립유공자 서훈 성별 비율			
구 분	전 체	여 성	남 성
명(%)	15,180(100)	357(2.4)	14,823(97.6)

- 이러한 결과는 지난 해 서훈 기준이 개선되어 여성 독립유공자 60명이 대거 추서된 수치가 포함된 결과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
- 한편 독립유공자 훈격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표 2) 참조, 남녀 모두 건국훈장에 해당하는 애족장이 가장 많음. 그러나 남성은 애족장,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 순이나, 여성은 애족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 애국장 순으로 훈격이 더 낮은 것이 현실임
 - 실제로 독립유공자 훈격 중에 가장 높은 대한민국장의 경우에는 송미령, 대통령장의 경우에는 남자현이 유일한 여성임

표2

독립유공자 서훈별 포상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합 계	건 국 훈 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 창
		소 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전체	15,180	10,940	30	92	821	4,315	5,682	1,270	2,970
	100.0	72.1	0.2	0.6	5.4	28.4	37.4	8.4	19.6
여성	357	188	1	1	10	39	137	45	124
	100.0	52.7	0.3	0.3	2.8	10.9	38.4	12.6	34.7
남성	14,823	10,752	29	91	811	4,276	5,545	1,225	2,846
	100.0	72.5	0.2	0.6	5.5	28.8	37.4	8.3	19.2

※ 2018.11.17. 기준(국가보훈처 자료 재구성)

-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올해 첫 인물로 유관순을 선정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유관순은 사실상 3·1운동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에게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 훈격은 건국훈장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으로 그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음
 - 이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와 천안시의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유관순선생의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공적을 인정하여 1등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장을 추서함

Ⅲ.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및 관련 연구 현황

1.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현황

- 그동안 제주여성항일운동은 크게 3·1만세운동(1919), 광주학생의거(1929) 그리고 제주해녀항일투쟁(1931~1932)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 발굴과 연구가 주로 이루어짐(기계형 등, 2017)
- 그간 연구자료, 법정기록 및 관련 증거,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제주 여성독립운동가는 고수선, 최정숙,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탁명숙과 더불어 올해 3월에 서훈을 받은 고연홍, 김진현까지 합하여 총 8명임(표 2) 참조
 - 제주여성독립유공자의 훈격을 살펴보면, 전국보다 더 하향되어 독립장, 애국장은 없고 애족장 1명, 건국포장 4명, 대통령 표창 3명으로 집계됨



표3

제주 여성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가 현황

연번	성명	생몰	공적	훈격여부
1	고수선	1989-1989	•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 제주여자청년회 창립 • 한국부인회 제주지부장	건국훈장 애족장 (1990)
2	최정숙	1902-1977	• 3·1운동 • 민족애국계몽운동	대통령표장(1993)
3	부춘화	1908-1995	• 제주해녀 항일투쟁	건국포장(2003)
4	김옥련	1907-2005	• 제주해녀 항일투쟁	건국포장(2003)
5	부덕량	1911-1939	• 제주해녀 항일투쟁	건국포장(2003)
6	탁명숙 ²⁾	1893-1972	• 3·5학생의거 참가, 제주보육원 설립 • 애국부녀연맹 남제주군지부 결성	건국포장(2003)
7	고연홍	1903-?	• 광주지역 3·10만세운동 참여	대통령표창(2019)
8	김진현 ³⁾	1911-2001	• 광주학생 의거 전개에 따른 서울 학생궐기 도모	대통령표창(2019)
9	강평국	1900-1933	• 3·1운동, 동경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 집행위원장 • 재일본 동경 동부 조선노동조합 집행위원	-
10	김시숙	1880-1933	• 재일여공보호회 조직 등 항일운동 • 조선여공들을 위한 노동운동, 신진회 여성부장	-
11	이갑문	1913-?	• 만보산 사건에 대한 일본 비난 격문 살포	-
12	이경선	1914-?	• 동덕여고보 학생으로 항일독서회 창설 •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활동	-
13	현호옥	1913-1986	• 일본 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조 오사카지부 회원으로 노동운동	-
14	안응수	1919-?	• 천주교도 및 신도들의 항일운동 연루 추정 • 광주형무소 수감(1945.1월 가출옥)	-
15	장경렬	1914-2001	• 제주청년동맹 여성 맹원으로 구금 • 산업별 부산건설협의회 항일 운동으로 옥고	-
16	고순효	1915~?	• 혁우동맹 산하 하도강습소 1기 졸업생 •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해녀항쟁 주도	-
17	김계석	1913~?	• 혁우동맹 산하 하도강습소 1기 졸업생 •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해녀항쟁 주도	-

※ 『제주항일인사실기』(2005)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훈처 홈페이지(2019.3.6) 및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2017), 제민일보 (2015년 3월 3일자) “제주여성 독립운동 열전”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²⁾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1900년 출생으로 표기됨(2019.3.6. 검색 결과)

³⁾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1909년 출생 사망년도 미상으로 표기됨(2019.3.6. 검색 결과)

- 한편 여성들은 독립운동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경우가 많고 후손이나 연구가 없거나 행정적 무관심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음(기계형 등, 2017)
 - 또한 자료판독 과정에서의 실수나 심화 연구 미수행, 행정적 태만 등으로 인해 공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국가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예컨대 고연홍의 경우, 제주 지역언론인 제민일보가 국가기록원의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2016)의 부실 편찬 보도⁴⁾를 통해 선생의 판결문 판독 오류를 밝혀 냈음
 - 이를 발판으로 3·1운동에 참여했지만 유공 서훈을 받지 못한 제주출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광복회제주도지부 등이 협력한 결과 올 3월에 서훈이 이루어짐
- 제주해녀항일투쟁의 경우도 당시 판결문과 수형기록 등의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추서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제주해녀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순효와 김계석이 있음. 제주해녀항쟁은 사회주의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70년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이렇듯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또는 가족이 아니면 제적증명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강평국, 김시숙, 이갑문, 이경선, 현호옥, 안응수, 장경렬 등 이미 공적이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관련 활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욱 많은 제주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연구 현황

-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물로는 제주도 발간의 『제주항일독립운동사』와 북제주문화원 발간의 『제주항일인사실기』가 있음
 - 『제주항일독립운동사』는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전반적인 특징과 항일운동의 특성을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에 국한하여 제주지역사회와 제주독립운동을 정리하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제주항일인사실기』는 제주항일인사 일람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 외에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의 행적과 실상을 자세히 기록함. 여성독립운동가 15인에 대한 귀중한 기록이 있으며, 제주 출신이 아니지만 제주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두석 및 비제주출신으로 제주에서 생을 마감한 탁명숙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점이 흥미로움. 다만 부덕량, 고순효, 김계석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은 아쉬움
- 그 외에 『제주여성사료집Ⅱ』에는 해녀항일투쟁 관련 신문기사가 정리되어 있으며, 『제주여성사Ⅱ:일제강점기』에서는 ‘항일과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민족자각과 독립운동, 해녀항일운동, 강제동원과 공출, 항일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음

⁴⁾ 제민일보 2016년 3월 8,9,10일자 1면, 3월 11,24,25일자 4면, 4월 13일자 6면 참고



- 제주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로는 최정숙의 항일운동 참여에 관한 한금순(2015)의 논문과 더불어 『신성백년사』(2009), 『불꽃이 향기가 되어』(2016) 등 일제강점기 선각적인 역할을 했던 제주여성들에 관한 단행본이 있음. 또한 올해 3월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에서 최정숙 구술자료집 『최정숙-최정숙을 만난 사람들』(2019)을 발간함
- 이렇듯 제주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물이나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연구물은 양적으로 극히 미비한 실정이고, 연구 주체는 대부분 행정 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이며 개인 연구는 드문 편임
- 반면 제주해녀항일운동 관련한 연구물은 개인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어 있음. 『제주잠수권의 투쟁사』(강대원, 2001),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의 입어관행 분쟁』(권미선, 2008), 『일제시대 남해안 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양상』(김수희, 2007) 등이 있고 학술대회 자료들도 발견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현장 사업이나 축제, 탐방, 여성인물 관련 행사 등도 가능한데, 제주지역 현장사업 및 축제 부문에서는 김만덕과 해녀를 제외하고는 지난 2017년 신성학원총동문회 주최로 최정숙 기념사업단이 발족되어 추모행사와 상술한 구술집 발간 사업 정도임
 - 제주지역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및 여성인물 관련 행사에서도 여성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행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다만 2016년에 3·1절 기념 '신성의 딸 강평국·고수선·최정숙의 독립운동의 길따라 걷다'라는 도보순례가 신성학원 동문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됨

IV.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을 위한 방안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노력 필요

- 여성사학자 거다 러너(Gerda Lerner)는 여성사란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해 온 가부장제 역사에 도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역사의 길잡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역사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성은 역사에서 주변인으로 취급되었음. 이제는 중앙 중심의 역사와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드러나지 못해왔던 지역여성의 역사에 주목해야 함
-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훈격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역사에서 기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임. 더욱 많은 여성인물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세세히 밝히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일이 시급함(기계형 등, 2017)
- 현재 우리나라 여성독립유공자가 전체 독립유공자의 2.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간 독립운동의 공적과 가치를 지극히 남성의 시각에서 평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직접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이에 독립운동가 남성을 뒷바라지 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돌본 부인, 딸, 며느리의 돌봄 노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성계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들 사이에서도 제기됨⁵⁾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연구 활성화

-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인정기준에 따르면, 제주독립유공자는 의병, 3·1운동, 문화운동, 국내항일, 학생운동, 광복군 활동, 애국계몽운동, 일본방면 활동 등 8개 부분에서 인정 대상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문화운동, 애국계몽운동의 대상자는 매우 적은 실정임(심옥주, 2017)
 - 이러한 분야의 여성인물을 밝혀내고 이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함
 - 국채보상을 위해 활동했던 <제주삼도리부인회>와 <함덕국채보상기성회> 등의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공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주독립운동가 관련한 발굴 및 연구에서는 독립운동인사를 제주지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방면 활동으로 독립유공자가 다수 인정된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제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 주목하고 제주독립운동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성 확보와 재평가가 필요함(심옥주, 2013)
-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인권의 의미를 타 지역 해녀활동과의 연계성을 추적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으로 재해석하여 폭을 넓혀나가야 함(심옥주, 2017)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축제는 60여건에 이룸. 그러나 여성과 관련한 축제와 현장 사업⁶⁾들이 지역과 지역문화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정여진 등, 2018)
 - 제주 여성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거리 조성 등이 문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제주 여성독립운동가 연구 자료의 문화 콘텐츠화는 여성사 연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심화연구의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임
 - 연구 자료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계, 연구기관, 행정, 박물관, 문화 관련 단체, 문화콘텐츠 관련 단체와 기업 등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아울러 심화연구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야 함

⁵⁾ 여성신문, 2019년 2월 28일자 기획 3면

⁶⁾ 제주해녀축제, 만덕축제,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작품전, 만덕제 봉행 추모제, 여성영화제, 최정숙 추모행사 및 기념 사업단 발족, 김만덕 나눔 큰잔치 등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연구기반 조성

-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를 위해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센터의 설치에 제주 여성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폭넓은 여성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정여진 등, 2018)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에 제주를 생존시키고 돌봐왔던 제주 여성들의 힘과 기여를 제주사회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21세기 성평등한 제주사회의 방향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을 역사화하고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새롭게 발굴·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지식 관광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김은실, 2018)

참고문헌

- 기계형·김정숙·문화순·박미현·이송희·정해은(2017). 『여성사 자료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여성가족부.
- 김은실(2018).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활성화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김찬흠 편저(2005).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 북제주문화원.
- 심옥주(2013).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심옥주(2017).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제주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특성과 의미”, 『세계평화를 향한 여성독립운동과 역할 그리고 보훈외교의 내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한국보훈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자료집.
- 정여진·고지영·문순덕·현혜경·기계형(2018).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한금순(2015).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권, 제주학회.

